

‘코로나 피해’ 1분기 서비스업→2분기 제조업

자동차·석유화학 등 수출 급감 ... 광주·전남 제조업 악화 건설경기 얼어붙고 취업자 수도 2분기 감소로 전환

올해 1분기 서비스업에 집중됐던 ‘코로나 타격’이 2분기에는 수출 급감을 겪고 있는 제조업으로 옮겨붙었다. 광주·전남지역 경제는 2분기 연속 ‘악화’를 지속하며 제조업 생산·수출·건설투자·취업자 수 부문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5일 발표한 ‘2020년 2분기 호남권 경제동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호남권 2분기 경기는 전분기보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권 제조업 생산은 수도권, 대구·경북권, 강원권 보다 감소 폭이 컸다. 광주지역 4월 기준 제조업 생산 감소율은 17.7%로 서울(-21.7%), 대구(-19.8%)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했다. 전남 지역도 제조업 생산액이 7.6% 감소하며 전국 평균(-4.7%) 보다 악화된 실적을 보였다. 제조업 생산 부문에서 석유화학·정제, 철강, 자동차는 감소한 반면 반도체와 음식료품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쇼핑·

재택근무·배달 수요 등으로 소폭 늘었다. 광주·전남 제조업의 악화일로는 지역내 총생산(GR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분기 호남권 수출감소율은 30%로, 전국 감소세(-20%)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수출 부진에 따른 작업량 감소로 스포티지와 쏘울의 생산라인을 지난 4월27일~5월8일, 25~29일, 6월1~5일(16일간), 봉고트럭의 생산라인을 6월4~5일, 8~9일(4일간) 가동 중단했다. 또 주력 차종인 셀토스의 경우 4월 중순부터 인도산 액정화면 부품 공급 문제로 생산에 차질을 빚다가 현지 부품공장이 가동을 재개하면서 지난 5월11일부터 생산라인을 정상 가동했다. 전남 주요 조선업체의 1~5월 중 신규 수주량은 12.4만CGT로 1년 전(56.8만CGT) 보다 78.1% 급감했다. 내수 부진과 수출 악화를 동시에 겪으

■2분기 권역별 경제동향

| | 소비 | 설비투자 | 건설투자 | 수출 |
|-----|----|------|------|-----|
| 호남권 | ▲ | ◇ | ▼▼ | ▼▼▼ |
| 수도권 | ◇ | ▼ | ◇ | ▼▼ |
| 동남권 | ▲ | ▼ | ▼ | ▼▼ |
| 충청권 | ▲ | ▼▼ | ◇ | ▼▼ |
| 대경권 | ◇ | ▼ | ◇ | ▼▼ |
| 강원권 | ▲ | ▼▼ | ◇ | ▼▼ |
| 제주권 | ▼ | ◇ | ▼▼ | ▲ |

*전분기대비(단,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자료:한국은행)

면서 지역 기업자금사정은 4~5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최악이다. 광주·전남 제조업 기업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지표(BSI)는 지난달 54로,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했다. 비제조업 자금사정은 지난 4월 62로 최저점을 찍은 뒤 5월 3포인트 오른 65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건설경기도 얼어붙으면서 전국 7개 권역 가운데 호남권을 포함한 동남권, 제주권은 건설투자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4월 중 호남권 민간부문 건설수주액은 98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조

2818억원)에 비해 22.9% 감소했다. 4~5월 취업자 수(월 평균)는 1분기 증가에서 2분기 감소로 전환했다. 광주는 4000명, 전남은 1000명 취업자가 줄었다. 한편 서비스업 생산을 보면 호남권이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로 전환한 가운데 나머지 모든 권역에서는 감소 폭이 1분기보다 줄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등이 음식점과 동네슈퍼 등에 쓰이면서 관련 업종은 소폭 회복세를 보였지만, 숙박업·운수업은 지역축제·행사가 취소되고 관광산업이 위축되면서 부진이 이어졌다. 이준범 한은 광주전남본부 과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1분기에는 서비스업 위주로 직접적 피해를 입었지만 2분기 들어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해외 주문이 본격적으로 끊긴 제조업에서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광주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수출은 대외 수요가 부진한 데다 주요 글로벌 업체들의 공장가동 정상화에 따른 경쟁심화로 감소할 전망이다. 석유화학·정제, 철강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12.37 (-49.14) ↓ 금리(국고채 3년) 0.817 (-0.002)
- ↓ 코스닥 750.36 (-9.14) ↑ 환율(USD) 1204.70 (+5.30)



보해, 송가인 굿즈 인기로 인새주 핑크박스 출시

팬클럽 ‘어게인’ 상징 색상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트로트 가수 송가인의 팬클럽 ‘어게인’(Again)을 상징하는 색상을 입힌 한정판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25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최근 ‘송가인 굿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보답하기 위해 송가인과 그의 팬클럽을 상징하는 핑크색 한정판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보해양조는 여름철을 앞두고 인새주 정용 포장 상자를 핑크색 바탕에 여름에 어울리는 시원한 흰색 옷을 입은 송가인 씨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더해 디자인했다. 기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주 등 주류 포장 상자는 흰색 등 무채색 계열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눈에 띄는 핑크색 상자가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비를 이끌어 낼 지도 주목된다. 앞서 보해양조는 지난해 12월 인새주 모델로 송가인을 선정한 바 있다. 송가인의 인기와 함께 다음달인 1월 한달 매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상당 증가하는 것은 물론, 포스터와 볼펜 등 송가인 굿즈가 큰 인기를 얻었다. /백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지난 1월 송가인이 모델로 등장한 인새주 포스터가 공개되면서 “포스터를 구하고 싶다”는 문의가 보해양조 측에 꾸준히 접수되기도 했다. 인새주 포스터는 식당과 주점 등 업소에 부착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탓에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찾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던 게 사실이다. 그만큼 송가인에 대한 인기가 높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보해양조는 송가인 인새주 포스터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소비자를 위한 포스터와 볼펜 등 굿즈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또 판촉용으로 만든 볼펜을 송가인 팬들에게 개별적으로 증정하는 등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해양조는 설명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인새주 모델 송가인을 좋아하는 팬들은 포스터와 볼펜 등 굿즈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소식을 접하면 보해양조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오기도 한다”며 “핑크박스 인새주가 송가인 팬은 물론, 모든 소비자에게 작은 즐거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중소기업 하반기 경기전망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

국내 중소기업들의 하반기 경기전망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912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업종별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0 하반기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반기 경기전망지수(SBHI)는 51.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8.6)보다 17.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또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올 상반기 경영실적에 대해서도 10곳 중 7곳이 ‘악화됐다’고 응답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경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업황전망(SBHI)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자동차및트레이러업(21.4) ▲(귀금속·인형·악기등)기타제품업(28.6) ▲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업(33.3)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35.7) ▲기타기계및장비업(38.1) ▲가족가방및신발업(42.9) ▲가구업(45.2) 등의 업종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비스업에서는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31.1) ▲숙박및음식점업(34.4) ▲운수업(44.4) ▲부동산업및대업(48.9) ▲교육서비스업(52.2) ▲도매및소매업(54.4)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55.6) 등의 업종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됐다. /백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송중욱(왼쪽 네 번째) 행장이 25일 박흥석(다섯 번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으로부터 5억원 이상 고객 기부클럽 인증패를 받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대한적십자사 5억원 고객 기부클럽 인증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이 총 6억 8000만원의 성금을 기부하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대한적십자사 5억원 기준 고객 기부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은행은 25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대한적십자사 고객 기부클럽(RCSV) '광주·전남 1호 가입'에 대한 인증패 증정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대한적십자사 모금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2억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송중욱 행장이 취임한 2017년 9월 이후에는 기부금이 3억5000만원에 달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7년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적십자사회원 유공장 최고명예대장을 수상했다.

송 행장은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기부금 전달 및 사회공헌활동, 금융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것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익을 좇기보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지역 소외된 이웃들과 더 많은 희망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코로나 여파 7월에도 일부 휴업

기아차 광주공장 일부 생산라인 7월에도 휴업에 들어간다. 25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3공장 봉고트럭 생산라인이 오는 7월8~10일, 29~30일 등 총 6일(조업일수 기준)간 휴업한다. 아시아와 중동, 중남미의 코로나 19 확산 지속으로 인한 수출 물량이 줄었

기 때문이다. 앞서 2공장 스포티지 생산라인은 이날부터 30일까지 4일간 휴업하기로 했다.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대형버스 라인도 내수 주문 감소 등으로 인해 7월3일과 6~10일 등 6일간 휴업한다. /백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